

2008 전망과 트렌드

③ '문화 흥진' 봄

'풍요로운 삶' 문화서 찾는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발품 팔아 문화적 감성을 채우려는 '마니아'들은 물론, 보통사람과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각종 문화콘텐츠를 추구하는 일반인들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중(영끌계수)은 25.9%로 지난해 2006년 같은 기간(26.5%)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05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생활비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다는 생활패턴을 보여준다.
품목별 지출 증가율을 보면 '가구·집기·가사용품'(42.5%)에 이어 문화생활비로 분류되는 '교양·

동창 모임·접대서 기업 마케팅까지 문화 접목
레스토랑 클래식 공연 마니아들이 살려나기도

오락'이 31.6%로 '보건의료'(30.2%), '주거'(28.5%), '교육'(27.9%), '교통·통신'(2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에서 막을 올린 오리 지널 뮤지컬 '캣츠'의 경우 광주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는 1억5천만원 상당의 1회분 공연 전 좌석을 구입해 전남·북 70개 지점의 VIP 고객들에게 선물하는 문화마케팅을 펼쳐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광주에 본사를 둔 보혜양조는 가

장 대중적인 문화장르인 영화를 통한 문화마케팅으로 훌륭한 재미를 보고 있다. 2~3개월에 한 번 꼴로 600여명의 고객들을 초청해 개봉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
지난해에는 5·18을 배경으로 한 코미디 영화 '스카우트'를 비롯, '화려한 휴가', '1번가의 기적' 등을 보여줬다.
'마니아'들의 활동은 수년 동안의 노하우를 거치면서 하나의 문화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광주시 남구 백운동의 작은 레스토랑 '레머니스'에서 열렸던 클래식 공연 '레머니스 하우스 콘서트'는 경영상의 이유로 레스토랑이 없어져 한

동안 운영되지 못하다 마니아들의 노력으로 최근 재개됐다.
콘서트 운영자 신순균(여·42)씨는 "지난해 12월 7일 피아니스트 임미정씨 공연을 시작으로 '레머니스 하우스 콘서트'를 다시 시작했다"며 "50여명의 참석자들은 공연 후에도 한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고 말했다.
콘서트는 2~3개월에 한 번씩 열릴 예정이다.
광주극장은 영화 마니아들의 '아지트'다.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이곳에서는 감독과의 대화, 작은 영화제 등으로 마니아들의 발걸음을 유혹한다.
구랍 31일 자정에 열린 '비드나잇 파티'에는 쏟아지는 폭설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관람객들이 영화퀴즈대회와 와인파티를 즐겼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1월중 모두 납부하면
자동차세 10% 할인
광주시 '선납제' 운영

광주시는 매년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에 따라 1월 중(16~31일)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 세액의 10%를 할인해준다.
배기량 2천cc 승용차(신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세액 52만원 가운데 5만2천원을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선납은 3월, 6월과 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혜택은 3월에 납부할 경우 7.5%, 6월 5%, 9월에는 2.5%를 받게 된다.
희망자는 관할 자치구 세무과에 신청한 뒤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
/정후식기자 who@

자치구 새해 첫사진

② 서구

발로 뛰는 '현장행정'
'행복 서구' 만들겠다

"서구는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발돋움했습니다. 올해도 '행복 서구'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주인(사진) 광주시 서구청장은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감동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관행에 얽매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일 잘하는 조직, 주민 체감 감동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각계 각층의 주민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서구 발전 아이디어뱅크'를 확대 운영하고 '빠꾸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적극 활용,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전개할 계획이다.
전 청장은 또 주민 참여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독거노인과 자매결연 맺기 운동, 기초 노령 연금제도 등 저소득층·장애인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설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대형 유통점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공영주차장 신설(주차대수 800~900면) 및 양동시장 역 승강기 설치사업(하반기 준공)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 청장은 특히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기반시설을 갖춰 서구를 살고 싶은 웰빙 도시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우선 화정1동과 농성·유천동, 양동·관천·마복·치평동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펴고,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과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주택가 차고지 확보 지원 확대 등 도시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에도 힘을 쏟겠다.
전 청장은 아울러 평생 학습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청 선정 '거점 영어 체험 학습센터'를 유치하고 매일 국내 유명강사를 초빙해 지역민과 직원들을 상대로 '행복 서구 아카데미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 청장은 "올해 서구의 예산은 약 1천600억원으로 이 중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300억원 정도만 구성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겨냥
체육시설 확충 2,070억 투입

市 체육진흥 5개년 계획

광주시는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등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광주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2012년까지 5년동안 3천36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체육시설 확충을 비롯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꾀한다.
이를 통해 시민 1명당 체육시설 면적을 현 0.93㎡에서 1.25㎡로 늘리고, 생활체육클럽 회원은 7만9천명에서 15만1천여명으로, 국내·외 대회 유치는 연간 8개에서 19개로 각각 늘려나갈 방침이다.
▷체육시설 확충=시는 우선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겨냥해 수영장 등 경기장 7개와 연습장 3개를 새로 짓고 현재 보유 중인 54개 경기장도 개·보수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에는 시비 1천263억원과 국비 807억원 등 모두 2천70억원의 투자할 방침이다.
▷학교·전문체육 육성=학교체육의 산실인 초·중·고교에 매년 1개팀

이상씩 체육팀의 창단을 유도, 신인 선수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이들을 가르칠 체육 지도자도 매년 30명 이상 양성해 선수들이 선진적인 경기 지도와 개인별 훈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체육 지원=자원봉사단과 의무 트레이너단, 생활체육보급단으로 '장애인체육 전문지원단'을 꾸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소년 불링 교실' 등 11가지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와 동호회 육성·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파크 골프장 신축, 첨단 문물장 개·보수 등 장애인 전용체육 시설 인프라도 확충된다.
▷생활체육 활성화=시민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해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생활체육 동호인을 늘려 '1시민1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호남대학교는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난 5일 호남대 관산캠퍼스에서 '아시아 문화 체험 페스티벌'을 열었다.
극성, 구례, 무안지역 다문화가정 아동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아시아 문화 이해 마당, 놀이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위정량기자 jw@kwangju.co.kr

광주시 투자자문관 이봉래씨 위촉
선진국 5개도시 명예유치자문관도

광주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삼성전자 이봉래(45·사진) 부장을 신인 투자자문관으로 위촉하는 한편 선진국 5개 도시에 명예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 해외 투자유치의 전진기지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삼성전자(주) 반도체총괄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 이봉래 부장을 투자자문관(과장급)으로 위촉했다.
광주 출신인 이 부장은 지난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13년동안 반도체 해외영업에 담당했다.
앞으로 2년 동안 시 투자유치부장을 보좌하면서 국내외의 주요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지휘하게 된 이 부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성사시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내' (Living Guide) and '신고' (New/Info). Lists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numbers.

SONY New BRAVIA advertisement. Features a large TV image and text: '고객감사축제·TV중고보상판매'. Includes a list of TV model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가발' (Wigs) and '대산프리모남녀가발' (Daesan Premium Men's and Women's Wigs). Features a 30% discount and photos of people wearing wigs.